

본 문서를 보실 때에는 Pc는 인쇄 레이아웃을 off 후 보는 것을 권장드리며,
모바일은 인쇄 레이아웃을 on 하신 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포기를 몰랐던 우둔한 새는 추락했다

“

시끄러우니까, 좀... 가줘. 제발.

... 머리가 울려서 속 울렁거린다고.

”

[이름]

츠하라 타마미 | つはら たまみ | 津原 珠魅

[나이]

7학년, 16세

[키/몸무게]

159cm / 41kg

[성별]
여성

[특성치]
지혜

[동아리]
귀가부

[외관]



1. 머리

밀크 초콜릿을 녹인 것 같던 머리색은 머리에 흐르던 윤기가 줄어들어서인지 채도가 낮아지고 푸석한 느낌이 드는 갈색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앞머리는 여전히 9:1 비율의 앞머리이지만 9:1의 비율로 넘기지 않았다면 시야를 다 가릴 정도로 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의 기준으로 오른쪽 옆머리가 조금 떨어져 학년 색인 보라색 리본으로 묶여있습니다. 머리 길이는 꼬리뼈 바로 위로 올 정도입니다.

2. 얼굴

그의 얼굴은 하얗고 뽀얀 어린아이의 정석 같은 느낌이 들던 피부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핏기 없이 창백한 느낌이 드는 피부가 되었습니다. 햇빛은 쬐고 다니는 걱정이 될 정도예요. 인상은 여전히 유들유들합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자주 짓는 표정은 어딘가 긴장하고 불편한 듯한 표정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머리를 살짝 치워 눈을 본다면 눈에도 생기 가득한 청안은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탁하고 무광의 하늘빛 구슬이 자리 잡은 것 같은 모양새이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걸까요?

3. 옷 또는 그 외

학교에서 제공한 지정복 중 저지와 바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지 안쪽에는 때 타지 않을 것 검은색 반팔 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바지는 길이를 리폼해서 허벅지 반 정도 오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바지 양옆에는 원래 바지와 비슷하게 지퍼가 달려있습니다. 양말은 발목보다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 하얀색 양말을 착용하고 있으며 신발은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귀에 검은색 볼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과 팔 전체부터 손의 반 정도는 붕대를 감도 있다는 것과 소매가 길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안쪽에 하늘색의 우정 팔찌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네요.

[성장과정]

2009년 ~ 2011년 (10, 12살)

- 공부는 쳐다도 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인 원예에 매진했었습니다. 노력은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어디서 보았던 걸까요, 아니면 곳곳하게 자신이 재능이 없지 않다고 믿었던 걸까요. 10살~11살의 츠하라 타마미는 여전히 원예를 좋아하고 식물을 사랑하며 다정하고 상냥했습니다.

2012년 (13살)

- 13살의 여름까지도 여전히 식물과 원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재능 없이 애정만으로 무언가를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그건 지독한 애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이어 나가던 포기를 모르던 아이, 츠하라 타마미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츠하라 타마미의 13살의 가을은 고민과 생각으로 얼룩진 계절이었습니다. 고민 덕에 아이가 학교에서 멍때리는 일이 많았고 자주 멍때리다 보니 넘어지고 어디 부딪히는 일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라는 말도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3살의 겨울의 끝자락, 4일간의 짧은 가출이 있었습니다. 4일간의 아이가 어디 있었는지 뭘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이의 몸골이 말도 못할 정도였다는 것과 아이가 집에 돌아온 이후 한 달간 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겠네요.

2013년~ 2014년 (14, 15살)

-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14살의 아이는 원예부를 더 이상하지 않고 귀가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고는 말 수도 적어지고 예민하며 우울한 상태로 공부에만 매진합니다. 자기의 재능이 있는 곳에 정착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15살의 가을부터 아이의 부모님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짐과 동시에 불안해하거나 긴장한 기색,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며 그때의 아이를 보았다면 혼자 있고 주로 책을 읽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2015년 (16살)

- 현재,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친 아이는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은 피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원예를 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당신들이 알던 지독하고 끈기 있는 아이는 이제 없다는 듯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하니, 혹시 모르죠. 당신들이 아는 그때 그 츠하라 타마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격]

예민한 / 우울한 / 다정한

타마미는 뭐가 두렵다는 듯 예민함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여유라는 게 존재한다는 듯이 여러 말을 먼저 꺼내거나, 웃으며 사람에게 잘 붙어 있거나 했다면 이제는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6년 전, 환하게 웃으며 조잘거리던 아이는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다정함이죠. 사람을 저버릴 수 없는 미련한 아이. 그게 츠하라 타마미 잭아요? 그러니 어찌 다정함 마저 내려 둘 수 있겠어요.

물론 아이가 다정함을 제대로 내보일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여유가 존재하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잠깐의 여유가 생기거나 너무 놀라면 그 숨겨두었던 다정함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누군가 제 주변에서 크게 다치거나 자신이 한 일로 피해를 보거나 하면 아이는 미안하고 억울하고 여러 감정이 섞인 얼굴로 "... 정신 좀 제대로 차리고 다녀. 놀랐잖아...!", "미, 미안해.... 내가 다 다시 해둘게." 등의 말을 하니까 말이에요.

아, 그리고 주변에 아이에 성격에 관해서 물어본다면 ... "츠히라? 몰라, 옆에 있을 틈을 쥐야 요즘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있지!", " 츠히라라면 잘 못 본 것 같은데? 숨어다니기라도 하는 줄 알았어." 등의 예민해서 우울해서 사람들을 피해다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어요. 츠히라 타마미는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깐요.

[기타]

1. 생일

- 8월 24일
- 별자리는 처녀자리
- 탄생화는 금잔화, 탄색목은 소나무
- 탄생화의 꽃말은 : 이별의 슬픔

2.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LIKE

- 사람, 비, 침묵, 책

HATE

- 소음, 쫄비, 관심, 화분, 햇빛

3. 동아리

- 아무것도 포기할 줄 몰랐던 아이는 14살 첫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예부를 그만두고 귀가부를 선택하면서 늘 자신의 재능임을 무시했던 공부를 손에 잡았다는 말이죠. 주변에서는 다들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하면서 의아해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이 있다면 반대되는 반응도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잘 생각했다며 사람은 자기 분수의 맞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아이에게 그런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그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은 변하듯 자신도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라는 뜻이 신경 조차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가끔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듯한 원예 도구를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것을 보면 원예라는 것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미련하게 구는 것이지 않을까요.

4. 평판

- 쉼터 내에서 아이의 주위 평판은 어릴 때와 현재가 매우 다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건 아이의 성격이 많이 변해서겠죠. 아이가 예민한 만큼, 옛날의 아이와 현재의 아이를 비교하며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애가 전에는 참 착했는데, 지금은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 그래! 못하는 걸 잡고 늘어질 때가 좋았지. 괜히 잘하는 걸 안다고 우쭐하는 거라니까! 하는 등의 반응이 쉼터 내에서는 떠나가라 들려올 정도로 말이에요.

세이바나 학원에서의 주위 평판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예전에 재밌게 대화했음을 기억한 아이가 와서 말을 건다거나 했을 때 좋지 못하게 반응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니 이 또한 어찌면 당연한 결과일 테죠. 주위에서는 아이를 보며 공부는.... 분명 나이대에 맞지 않을 정도로 잘하는데 말이에요. 애가.... 사람을 많이 피 하더라구요. 13살에 가을까지만 해도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과하는 것 보면 다정한 것 같지만. 하는 등의 말과

츠하라 말이에요? 개랑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요! 꼭 자기가 성낼 걸 다 성내놓고 제가 잘 못 한 것같이 굳이 자기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서 미안하다 던 지 그런 사족을 붙인다니까요? 진짜 개랑은 앞으로 대화도 안 할 거예요! 하는 등의 평판들이 다 수 존재합니다.

[소지품]

-금잔화 자수 손수건

-담요

-붕대

-원에 세트

[관계]

#밖에 좀 나가! - 치카 에이코

“... 그래서 오늘도 나가야 한다고?”

- 우리의 관계는 어쩌다가 시작되었을까요, 그래요. 내가 밖을 통 나가지 않았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햇빛 좀 받으라는 말이 빈말인 줄 알았고 그렇게까지 자기를 끌고 나가는 것의 횡수가 일정할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죠. 분명 산책하러 가자. 라는 말에는 내 동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여전히 해를 보는 것은 버겁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은 산책이라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나요. 그저 우리의 어정쩡한 관계만큼이나 이 산책은 그저 서로의 안위 확인용일 텐데요. 나도 잘 있고 너도 잘 있구나. 하는 우리의 딱 관계의 거리는 그 정도니까요.

#의문의 공부 메이트 - 히가시요츠야나기 센

“... 이번 자료는 또 어떻게 준비하지?”

- ...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이 의문의 마니또처럼 공부를 봐주는 관계가 지속된 정확한 사유를 말이에요. 물론 이제 와서 사유를 찾는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저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당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과학 공부 자료를 가져다 책상에 몰래 가져다주기 시작한 거고

당신은 그런 나에게 고마움을 베푸는 거긴 하지만.... 모양새가 너무 마니또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만 빼면 다 완벽한 것 같아요.

#뱀과 새의 상호관계 - 스즈하나 이츠키

“이츠키, ... 오늘도 늦게 끝나?”

- 밀어내는 자와 옆에 있으려고 꼭 붙으려는 자. 그 둘의 싸움이 우리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줄도 서로의 성격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도 상상도 못 했지만.... 뭐, 그런 게 무슨 문제겠나요. 지금은 서로 늘 같이 하교도 하고, 서로의 성격이 바뀐에 따라 우리 서로가 해주던 것이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의 욕심으로 묶이고 변화된 관계이니 괜찮지 않을까요? 애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너와 나의 관계가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떠나기 전까지는 평생 이어질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 이 이상은 ...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